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3월17일 평양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하였다. 착공식에 직접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올해 내로 이를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스스로가 "수도인 평양에마저 현대적인 의료 보건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쁘다"고 실토한 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북한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방역 및 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차체에 남북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동·서독은 어떠했을까?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2년 동·서독은 우리의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의 교훈

기본합의서와 같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교통, 환경,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부속협정을 맺었다.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에서는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고 의약품, 의학 기술품, 소모품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앞서 1973년에는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이나 재난 및 환경오염 등이 상대국에 미칠 때 협력하기로 한 공동재난과 관련된 협정도 체결되었다.

사실 이러한 분야의 협력은 동독이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독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동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동독 내에 미칠 영향을 가장 낮게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까지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 큰 진전은 없었다. 동독이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가 국제 정세의 악화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어떤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체제 위기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또한 중앙집권적 의료 배급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과 의료 기술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보합 체계의 부재로 도농 간 계층별 보건의

료 혜택이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취약한 입산부·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 당국 간에 보건의료 분과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결핵과 말라리아 등의 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과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는 일거에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을 채워야 할 의료가기와 의료진도 교육과 기본시설 또한 선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년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서야 보건의료 등 양측의 복지 수준을 맞추는데 있어 수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단순히 재정적인 투입을 넘어 남북이 생명과 건강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와 지난 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를 충분히 예견해야 한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체제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뒤로 넘기는 게 좋다. 대신 예방의학, 한의학, 전염병 치료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정보 교류와 기술적인 분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의료 장비와 기술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가 수반되고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의 과정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칼럼

사람다운 사람이 많은 사회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어느 날 이솝(Aesop : BC 6세기경 그리스의 우화 작가)의 아버지가 어린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애야, 목욕탕에서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나라." 이솝은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 그런데 목욕탕 입구에 커다란 돌맹이가 하나 박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아니, 누가 이런 돌을 여기에 둔 거야."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평만 늘어놓을 뿐 그 돌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이솝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켜보았지만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일으켜 주더니 그 돌을 단숨에 뽑아 멀리 던져 버리고는 손을 툭

톡 털며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이솝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들이 너무 늦게 오자 아버지가 꾸중을 했지만, 이솝은 태연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목욕탕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잘못구나. 아버지와 함께 목욕 가지구나" 이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욕탕은 발디딜 틈도 없이 복잡했다. "너 이 녀석,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 밖에 없다니." 아버지는 이솝을 몹시 나무랐다. 그러자 이솝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아가 제가 목욕탕 문 앞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돌부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 하나 돌만 탓할 뿐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웠어요.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 뿐이지요." 이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

본디 '사람'이란 말은 '살다'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

고 사회를 이루어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는 것이야 어디 사람뿐인가. 동물도 식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할까? '영장'이란 영을 가진 동물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란 뜻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날 때까지 영혼의 상태인 중음(中陰)에 있다가 각기 업보를 불러오는 인연인 업연(業緣)을 따라 몸을 받게 된다. 죽은 몸에서 빠져 나온 영혼이 또 다른 몸을 받게 되어 태어나게 되는데 이생을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서 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계속 가족으로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연(業緣)으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19일 북한산 국립공원 백운대에서 원불교, 불교, 카톨릭, 개신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담계 살겠습시다' 다짐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아빠담계 살겠습시다' '아들·딸담계 살겠습시다' '나담계 살겠습시다' '엄마담계 살겠습시다' '사회인담계 살겠습시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사소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와 세상이 바뀌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존중할 때 내가 바로 서게 된다는 이치를 알아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며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과 각자의 위치에서 근실하게 활동하면서 서로가 나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자리가 타(自利利他)의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를 살리고 조화를 이루는 상생상화(相生相和)의 정신으로 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즐겨워하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각각의 사이에 친목과 소통,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만 갈등과 반목과 불신이 아니라면 그래도 아직은 사람다운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다.

社說

조급함이 코로나 지역 방역망 무너뜨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던 체육시설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지역사회 방역망이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차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광주 지역 체육시설 817곳 가운데 158곳인 19%만이 휴업을 이어 가고 있다. (8일 현재) 지난 1차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전체 670곳이 휴업에 참여했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1차 때는 체육시설 열 곳 중 여덟 곳이 문을 닫았지만 이번 2차 때는 열 곳 가운데 두 곳만이 휴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광주시·자치구가 위탁 운영 중인 일부 공공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은 지난 3월22일 문을 닫았다가 6일 운영을 재개했다. 이들 운영 주체들은 시설 운영비 압박과 직원 생계 위협 등 경영난이 가장

되고 있기 때문에 개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광주 자치구에 따르면 이처럼 운영난을 이유로 문을 여는 곳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때맞춰 문을 열고 있는 체육시설로 물리게 되면 자칫 집단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경계 심리가 약화하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구축하고 유지해 온 방역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문을 연 체육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등 행정적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되, 이들 시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조건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 스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개학 취약층 학생 세심하게 살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 시도한 온라인 개학이 무난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중3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택 수업 형식의 온라인 수업에 광주 학생들의 출석률은 99%에 육박했고 우려했던 접속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업은 EBS 교재 등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웹캠을 이용 교사와 학생이 화상 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선도 충분히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도 없어 대체로 원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이고 사회복지시설 출신 학생들은 컴퓨터 등 스마트기기가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아 제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앞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복지시설 출신 학생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

했다. 이로 인해 광산구 용진육아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들은 아예 스마트기기를 받지 못했고 동구 영신원의 중학생들도 신청자의 3분의 1만 받았다. 남구 '노틀담 형제의 집' 초등학교들은 20명이 스마트기기 대여를 희망했지만 절반만 받았다.

스마트기기가 부족하다 보니 일부 복지시설들은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한데 모아 수업을 듣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온라인 개학 취지에도 어긋나고 마우스 등 공동으로 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감염도 우려된다.

조만간 온라인 개학이 모든 학생들로 확대될 텐데 이런 상태라면 취약 계층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될까 걱정이다. 취약 계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데 교육 당국의 무성의한 준비로 전염병 위험에 노출돼서야 되겠는가. 당국의 세심한 손길이 아쉽다.

無等鼓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연과 창조의 원리 가운데 '7대 2' 법칙이라는 게 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율로, 우선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78:22'이다. 또한 지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비율, 육지에서 산과 평지의 비율, 신체에서 물과 기타 유기물질의 비율도 이와 흡사하다.

여기에서 확장된 것이 '80 대 20 법칙' 또는 '2대 8 법칙'으로 불리는 '파레토의 법칙'이다.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탈리아의 '파레토'는 일관된 형태의 분배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흥년이 들어도 상위 계층 20%의 공간은 가득하고, 하위 80%는 기아에 시달린다는 것인데 즉 이탈리아 인구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용어가 경영·마케팅에 적용되면 서 20%의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은행 예금의 80%는 20%의 고객이 예치한 돈이라는 의미로도 활용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70 대 30' 배분으로, 덜 가진 70%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고사 직전인 자영업과 경기 회복을 우선 과제로 판단했고, 이를 위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인, 대학 총장, 공무원 등 소위 상위 30%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국가살림살이는 30%가 낸 세금으로 70%의 사회복지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난이 가중될수록 국가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더더욱 이번 한 번의 지원으로 하위 70% 가구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가진' 30%의 추가 기부와 경제 활동이 절실하다. '함께 가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재난지원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기고

허균과 나주 남평의 봄



김철성  
전남도 남평과적검문소 주무관

해남이 고향인 법정 스님은 말했다. "봄이와 꽃 핀 게 아니라 꽃이 피어봄이다"라고. 이 말의 진의는 '봄이와도 꽃이 없으니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의 '춘래불사춘'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구례 산수유, 광양 매화, 여수 진달래 등의 남도 꽃소식이 전국으로 전해진다. 꽃향기에 매혹된 상춘객들로 남도 땅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 "꽃이 피도 봄은 봄이 아니다"라고 비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대로 앞다퉈 꽃이 피어나는 봄이 왔기에 지면을 통해서라도 남도 꽃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것도 필자의 일터가 있는 나주 남평 지역을 통해서 말이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찻집 귀천의 시인 천상병

이 말했듯 문학의 왕이라는 시 몇 편을 봄소식에 넣었다.

얼마 전 읍내 드들강 제방에 심어진 산수유가 꽃을 활짝 피워 냈다. 산수유 꽃은 어느 산문집의 글귀처럼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 피어난, 마치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였다. 물론 지리산 자락 산동마을의 근략진 산수유처럼 투명한 화려함은 없지만 봄의 전령사이기엔 부족함이 없다.

남평 드들강에는 두 개의 강변길이 있다. 하나는 강물에 인접한 휴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변공원을 사이에 놓고 읍내를 보호하는 제방형 강변도로다. 어느새 강변 휴길에는 산보를 즐기는 가벼운 옷차림의 주민들과 강변공원 잡초 밭에서 벌이를 깨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또 강변 물가에 등성등성 심어져 있는 버드나무에도 물이 올라, 남정 박노수 화백의 '유하(柳下)라는 그림을 연상케 하는 연록 이파리들이 늘어진 줄기에 다닥다닥 매달려 있다.

강변마을 남평의 봄을 생각하며 한 편의 시를 떠올렸다. 담양 출신 소요 태능 스님의 '문외음(門外吟)이 그것이다. "산은 우뚝 솟아 있고/ 물은 차고/ 바람은 술술 불고/ 꽃은 그윽하게 피어 있고

/ 다만 이렇게 살아라/ 뒷 때문에 힐끔 힐끔 세정을 엿보는가." 사실 누구라도 강변 휴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강 건너 산들을 보며 강물을 스치는 바람을 쏘이고 주변의 꽃들을 보면 가히 여기가 '별유천 지비인간'의 세상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남평의 풍광 중 으뜸은 남석리에 있는 드들강 술밭 유원지다. 그곳에는 조선시대 때 남평 현감 우성이 제방을 쌓고, 현감 백인걸이 강을 따라 소나무를 심었다는 삼리송의 일부가 남아있다. 또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 곡을 붙인 남평 출신 작곡가 안성현의 노래비가 있다. 노래비 근처에는 남평에 현존하는 네 정자 중 하나인 탁사정도 있다. 탁사정은 1587년 윤선기가 조성한 것이다. 탁사라는 당호는 굴원의 '초사(어부사)'의 '장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갖건을 씻고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남평의 봄을 생각하면 또 다른 시 한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이단자로 불리었던 천재 허균(1569~1618)이다. 그가 남평에 자취를 남긴 곳은 앞서 말한 드들강 술밭유원지로 추정

된다. '남평읍지'에는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허균이 왜 남평까지 오게 된 것일까 하는 점이다. 1986년에 발표된 박종현의 논문 '실존 홍길동 연구'에 따르면 홍길동은 경성절제사를 지낸 홍상직의 셋째 아들이다. 물론 홍길동의 어머니는 판기 출신 비첩이다. 두 형의 어머니인 처가 바로 남평 문씨다. 그래서 남평이란 고장을 자못 궁금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직 후 전라도 산천을 유람할 때 남평에 온 것이다. 시를 읽어본다. "한가로운 말을 타고 너를 들을 땀이끼니/ 들 밖의 마을 집을 새로 지붕 이었구려/ 봄 저무니 언덕 꽃은 바람에 휘날리고/ 비가 깨니 물오리는 모래톱에 노래하네."

허균이 남평에 와서 느꼈을 남도의 봄소식과 현재의 봄소식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꽃 피어 남평의 봄은 다시 왔지만 드들강 유원지 그 어디서도 허균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안성현 노래비나 탁사정 근처 어디쯤에 허균의 시비도 하나 소박하게 세워 보면 어떨까. 허균의 문학적 자취가 어떤 형상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때 또 하나의 값진 문화적 자산이 축적되는 것이기에.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